

#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을 아우르다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개막 28일 만에 관람객 1만명 이상 방문 '성황'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가 지난 1월 24일 개막해 28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 전은 평소 접하기 힘든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친근한 작가들의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1층 라운지에 전시된 박수근의 작품 '소금장수' 속으로 들어가 보는 포토존은 인종차별 장소를 인기를 끌고 있다.

유진성 정읍시장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관람객들의 후기와 응원의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전했다.

관객들은 "정읍에서 이런 거대한 전시를 한다는 것에 놀라고 그림이 주는 행복감을 새삼 느꼈다", "미술관 갈 생각에 명절을 하얗게 지새고 방목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주말 아침이라 일어나기 많이 힘들었지만 왕복 320km를 달려왔다", "몇 번을 재방문하고 있다" 등의 후기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20일 까지 이어진다.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가 지난 1월 24일 개막해 28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맞아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20일 까지 이어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다.

시립미술관은 특별기획전시 외에도 정기교육과 미술관 특약아트 등 연간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 꽃차례처럼 별이 운다... 송재학 '슬프다 풀 꽃헤 이슬'

'우리는 어디에서 헤어지는가 혼백의 이목구비가 이렇듯 꽃나무 아래 유령의 손짓에 이끌리는 꽃잎들, 낙화하면서 꽃이었던 기억은 죄다 빗물에 씻겨버렸는가 붉은색마저 희미해져 구나 향긋한 꽃잎이 아니라면 익숙한 서체인 거지 어디에서 왔느냐 묻지 않고 어디 가느냐 묻지 않는다' ('꽃 지는 날' 중)

1986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송재학(64)의 '슬프다 풀 꽃헤 이슬'이 나왔다. 시 50편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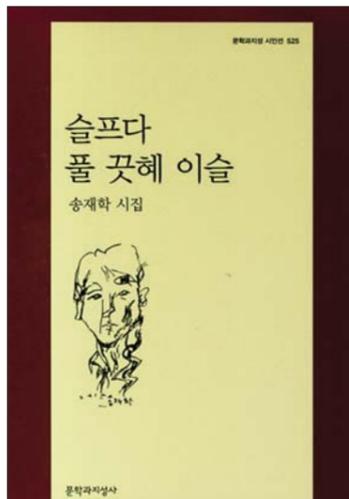
제목 '슬프다 풀 꽃헤 이슬'은 1935년 세창서관에서 발간된 딱지본 '미남자의 투'에 수록된 옛 소설 제목에서 가져왔다. 딱지본은 1910년대 초반부터 신식 활판인쇄기로 찍어서 발행한 국문 소설류의 책이다.

'자녀의 빨로 귀얄질하면서 바다의 얼굴은 몽개어졌다 분명한 이목구비가 없기에 느린 파도는 머리칼을 밀고 간다 독백이 있어야 할 자리마다 집어등이 차례차례 켜진다 그때 너는 되돌아보았느냐 빨이란 빨 모두 사춘기인 것을, 바다가 먼바다를 끌어당기듯 어둠이 어둠을 받아 적는 것도 보았다 그때 너는 나를 끄집어내어 행구었느냐 바다는, 바다의 모서리마저 점자처럼 더듬거린다 희고 검은 종소리가 불고기 떼처럼 육체를 통과했다 불결이

멈춘 점토관 위에서 너는 무엇이고자 했느냐 담금질이 계속되는 부글거리는 불꽃, 거꾸로 매달린 수많은 눈동자, 바다의 얼굴은 파도 아래 온전했다 그때 너는 금 간 얼굴을 들었다('그때 너는 바다로 들어갔다/그때 너는 무엇이었느냐' 전문)

'꽃차례처럼 별이 운다 밤이니까 더 가까이 운다 별보다 더 맑은 소리는 별들 사이에 있다 거울도 어둠도 겹치지 못하면서 금 가도록 운다 되돌아오지 않는 소리를 머금고 운다 맨살과 맨살이 부딪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고 있다 하지만 창백한 별빛만 지상에 왔다 별의 울음소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별의 거처를 아니까 날이 밝아도 이별은 아니겠지 만, 별도 꽃도 서로 갈피가 없다 녹슬지 않는 소리는 없기에 별빛은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았다 별의 눈매는 가벼워서 별빛은 벌써 떠나고 눈물의 사냥만 저 별에 남았다 오, 우리가 방금 지켜본 별은 비문이었다('아직 별의 울음소리는 도착하지 않았다' 전문)

시인은 "한 편의 놀라운 시는, 통점이 맞히는 시는, 다가올 때, 입말과 글말로 동시에, 전율의 육체로 온다"고 했다. "시가 육체(그건 사물의 육체이면서 내 몸까지이다)를 획득하



는 경우이다. 내 육신의 한 지점을 바늘이 통과하는 것, 또는 가슴에 막막한 통점이 번지는 것은 방금 경험한 시의 몸이 내 몸의 어떤 부분/기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듬 더듬 말이나 글이 되려면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가 더 필요하다" 130쪽, 9000원, 문학과지성사 /뉴시스

## 전주시립도서관, '1인 미디어 시대, 나는 북튜버' 강의 진행

시민 개인이 유튜브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독서토론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지역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북튜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책과 유튜브의 합성어인 북튜브는 책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번 교육은 독서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이다.

이번 교육에는 유튜브 채널 '리오파고'를 운영중인 박준홍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강사가 초청돼 '1인 미디어 시대, 나는 북튜버'를 주제로 강연한다.

시는 이번 도서관 북튜버 양성교육을 통해 독서동아리 회원 누구나 채널을 만들어 자신만의 책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독서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063-230-18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호철 기자



순창군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가 숨쉬는 순창'

순창군, 4년 연속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사업 선정

순창군이 '문화가 숨쉬는 순창'의 긍정 방향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연속 4년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군과 함께 공모에 참여한 '문화포럼 나니레'는 1990년 9월 나니레국악실내악단을 창단해 전주KBS 어린이 국악동요단 반주단,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등을 펼친바 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에서 '소리 꽃이 피다' 상설공연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순창 향토회관에서 퓨전 해학극 '미스터 훈풍'으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어 올해 펼쳐질 공연

에도 군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인 '문화가 있는 날'에 5~6회 가량 편성 운영될 예정이며, 동편제와 서편제의 발원지인 순창을 배경으로 '황야리 아씨전'도 창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도 선정돼, 국립예술단체인 경기도립극단의 '명량시장' 뮤지컬 공연도 선보인다. 민간예술단체분야 문화공감사업 선정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해 '드림필 오케스트라'에 이어 올해도 훌륭한 공연단체와 함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군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선사해 문화가 숨 쉬는 순창, 웃음이 넘치는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